

**2024 년 10 월 20 일 “(생명의 공동체 10) 자신을 이해하고 끌어안기”(눅 10:25-28; 고전 15:10a)**

말씀 아래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인식을 높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자원을 부어 주시는 통로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지능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1] 다중 지능**

하워드 가드너가 주창한 다중지능이론은 인간의 지능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① 언어 지능 - 언어를 잘 사용하고 글 쓰기와 말하는 능력
- ② 논리-수학 지능 - 논리적 추론,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
- ③ 공간 지능 - 시각적 이미지 인식, 머릿속에서 변형 조작의 능력
- ④ 신체-운동 지능 - 신체를 조절, 손/몸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능력.
- ⑤ 음악 지능 - 음을 이해하고 만들고 리듬/멜로디를 잘 다루는 능력
- ⑥ 대인관계 지능 - 다른 사람 감정/동기를 이해, 소통하는 능력
- ⑦ 내성 지능(자기이해 지능) - 자기 감정 생각 내면을 이해하고 조절
- ⑧ 자연 지능 - 자연 세계, 동식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잘 하는 능력

어떤 분야에서 존경받는 탁월한 인재들(의사, 발레리나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높은 자기이해 지능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데 이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를 새롭게 보고 이해함으로써 자기이해 지능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를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빛 또한 만나면 더욱 자신을 긍정하며, 겸손과 인내가 중요한 길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삶의 참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2] 나의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과거에 죄인의 괴수 노릇을 하면서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신랄하고 잔인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분을 따르게 되니 내가 나 되어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인간회복의 모습입니다. 딤후 1:15-16 을 보면, 공격적이고 신랄했던 그가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진 것입니다.

안셀름 그륀은 '아래로부터의 영성'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 '자기자신 잘 대하기' '사랑 안에서 나를 찾다'등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이며, 자기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이기 일수이다. 진정한 치유와 행복은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종종 자기를 비판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것이 정상임을 깊이 동의한다면 오히려 일상적 관계와 일 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공동체를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만족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미숙해 보여도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괜찮다'고 느끼는 안도감으로 공동체를 편안하게 느끼며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끌어안는 일은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 지체들이 연결되게 하는 생명의 힘입니다. 비록 자신을 끌어 안는 일이 낯설고, 어설프게 느껴질 지라도 이것이 생명입니다. 직장이나 사회단체에서는 허용되기 어렵겠지만 교회에서 만큼은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자신을 사랑하고 끌어안는 일을 실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나는 공동체 안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